

# 대학 심화 단계의 글쓰기 교재 개발 사례 연구

—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과목을 중심으로 —

주 지 영\* · 최 현 재\*\* · 박 선 양\*\*\* (군산대)

## < 목 차 >

1. 머리말
2. 군산대학교의 심화 단계 글쓰기 운영 현황
3. 군산대학교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 분석
  - 3.1. 텍스트의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
  - 3.2. 활동 문제의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
4. 맺음말

## 국문초록

심화 단계의 글쓰기 연구가 단계별 글쓰기 교육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가지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교육 현황에 관한 사례 보고가 양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군산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심화 단계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군산대학교의 학습자 수준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재는 글쓰기의 심화 단계라는 교과목 개설 목적과 의사소통, 사고력 함양이라는 학습 성과를 개발의 기초 사항으로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활동 문제를 조직하였다. 텍스트는 지식의 확산성과 연계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 문제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갖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재의 독창성은 4부로 구성된 주제 아래 장별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배치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점이다. 교수자가 학과별 특성과 관심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의 주제와 난이도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교재의 의의가 교과목의 학습 성과로 성취되려면 교수자의 깊고 넓은 배경지식과 디지털 시대의 이해, 학습자의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핵심어 : 심화 단계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대학 글쓰기 교재,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 1. 머리말

2005년 대학글쓰기의 체제개편으로 교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도 늘어났다. 윤철민에 의하면 2001~2014년 교재 관련 연구는 총 23편 정도로 일반적(실용)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의 유효성 논의, 범교과적 교재와 계열별 특화 교재에서의 선택 논의가 있었다.<sup>1)</sup> 최근 3개년의 교재연구는 14편 정도로 크게 대학별 교재연구와 교재 전반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고 전자가 훨씬 많다.

1) 윤철민,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2005, 2014년 고려대학교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5, 177-204면.

대학별 교재의 연구에서는 읽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독서편식을 지적<sup>2)</sup>하거나 발문유형을 통해 목표 도달을 점검<sup>3)</sup>하고 교재보다 교수과정과 교수방법을 강조<sup>4)</sup>하기도 하였다. 교재 구성에 있어서는 개요의 중요성을 언급<sup>5)</sup>하고 수행성과 실용성을 강화하여 학술적 글쓰기를 추구<sup>6)</sup>하였다. 교강사 논의를 피드백하여 개편한 교재에서 말하기 중요성과 학생 활동 지향<sup>7)</sup>이라는 변화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교재의 방향성은 대부분 융합을 지향<sup>8)</sup>하였는데 쓰기 주체를 강조하여 자아성찰적 글쓰기가 추가되어야 한다<sup>9)</sup>고 하였다.

다음으로 글쓰기 교재 전반적인 연구에서는 조경덕<sup>10)</sup>이 현행 교재들에서는 글의 진술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글쓰기 과정에 설명을, 하위 내용으로 서사와 묘사, 논증을 넣자고 제안하였다. 김정숙, 백운경<sup>11)</sup>은 10

- 
- 2) 손혜숙,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독서와 소통」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한남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227-254면.
  - 3) 양근용, 「인천대학교 글쓰기 교재 검토」, 『인문학 연구』 29, 인문학연구소, 2018, 105-133면.
  - 4) 조성숙,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의 통합검토 및 제안」, 『한민족어문학』 81, 한민족어문학회, 2018, 9-37면.
  - 5) 이청, 「대학 글쓰기 교재의 개요항목 작성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1),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53-180면.
  - 6) 이다은,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양상 연구-충남대학교 「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28,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161-196면.
  - 7) 서승희, 「대학 글쓰기교재 분석 및 방향성 고찰-이화여자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9,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7, 213-238면.
  - 8) 심지연, 「사고와 표현 통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서원대학교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57,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361-394면.; 양수연,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과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9,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79-210면.
  - 9) 문미애,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방안-전북대학교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2),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67-88면.
  - 10) 조경덕,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글의 진술방식 고찰」-대학 신입생 대상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2018, 475-500면.
  - 11) 김정숙, 백운경,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3-116면.

개 거점 국립대 교재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교재에서 소통과 창의를 목표로 하며 글쓰기 절차와 방법은 공통, 어문규정은 3개교만 다루고 있다며 글쓰기 목표와 구체적 교재 구성을 새롭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에 관한 연구는 수원대와 한남대의 교재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sup>12)</sup>가 유일하다. 기초 글쓰기 교재 연구에 비해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 연구가 적은 까닭은 심화 단계의 글쓰기가 학습자 주체의 논문 실습과 같은 학술적 글쓰기나 교수자 재량으로 운영되는 고전 독서 형태로, 교재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를 대상으로 누리집에서 찾아본 결과, 총 14개 국립대에서 심화 단계 글쓰기에 해당하는 교과목 개설을 찾을 수 있었다.<sup>13)</sup> <창의적 글쓰기>, <고전읽기와 토론>, <창의적 사고와 표현>, <독서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실용적 글쓰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인문고전읽기>, <문학적 상상력과 글쓰기> 등의 교과목과 설명에서 이를 확인하였다.<sup>14)</sup>

국내 국립대학 심화 단계 글쓰기 교육 현황은 크게 과정별로 진행되는 경우와 단계별·과정별 혼합 운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과정별 운영(계열별 필수)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을, 단계별·과정별 운영(공통/계열별 필수)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등을 꼽을 수 있다.<sup>15)</sup>

심화 단계 글쓰기 교과목의 방향성은 학술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고전읽기 등의 교과목 명이나 교재 명에서 드러나듯 세부 목적에 있어서는 학교별

12) 손혜숙, 앞의 논문; 양수연, 앞의 논문 참고.

13) 총 14개 국립대에서 개설한 교양 영역의 교과목을 살폈다. 각 대학의 세부 개설 사항은 2019년 6월 말 현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만 참고하였고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는 누리집에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14) 대학별 강좌의 운영에 있어서 교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특정 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쓰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15) 이외에 인하대, 서강대, 성균관대, 대구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의 대학에서도 단계별, 과정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고력의 확장을 꾀하는 심화 단계의 글쓰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초 글쓰기의 단계를 넘어서는 심화 단계의 글쓰기 교육이므로, 단계별 교육의 효용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하며,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전문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창의성, 소통, 문제해결, 시민정신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기초적 역량을 강조하는 기초 단계의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된 상황이나, 심화 단계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대학별 심화 단계 글쓰기 교육 현황(운영주체, 구성원, 강좌 규모)이나, 대학별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의 경향, 교재와 교수학습목표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심화 단계의 글쓰기 연구가 단계별 글쓰기 교육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대학의 교육 현황 제반에 관한 사례 보고가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운영 방법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된 다양한 교육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때, 심화 단계 글쓰기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산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대학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심화 단계 글쓰기의 운

---

16)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 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한국정책학회, 2017, 3-27면.; 이선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23(1), 안암교육학회, 2017, 231-260면.; 한동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9-24면.; 김누리, 박숙희, 전경원, 표정민,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창의력교육연구』17(4),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7, 101-121면.(『2017년 창의성 정책 포럼-창의적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창의공학연구센터, <http://www.ccer.or.kr>)

용과 선수과목인 <기초글쓰기>의 군산대학교 자체 교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재 개발의 원리와 구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고의 논의는 심화 단계 글쓰기의 학습목표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살피는 선행 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심화 단계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기존 강의에 대한 진단에 바탕을 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텍스트 및 활동문제의 구성 원리와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구성의 주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군산대학교의 심화 단계 글쓰기 운영 현황

군산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종합적 사고력 강화를 위하여 1학년 때 <기초글쓰기>를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기초글쓰기>를 이수한 학생들은 2학년 때 심화 단계 글쓰기인 <창의적 글쓰기>를 이수할 수 있는데, 10개 학과에서 이 강좌를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창의적 글쓰기>는 <기초글쓰기>의 연장선상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군산대학교 심화 단계 글쓰기는 교양과목이면서 <기초글쓰기>교과의 심화 단계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교과목 <창의적 글쓰기>가 도달해야 할 학습 성과는 의사소통 역량과 종합적 사고력이다.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이 개설된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에는 정식으로

---

17) 군산대학교 교양과정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창의적 글쓰기>는 일반교양 영역으로 분류된 교과목명으로,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을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한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미디어문화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물류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회계학과, 미술학과, 음악과로 총 10개이다. 이하 교과목명은 ‘< >’로 표시하고, 교재는 ‘『 』’로 표기하고자 한다.

출판된 교재 없이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세상을 바꾼 책 100』, 『인생을 바꾼 책 106』<sup>18)</sup>에 실린 군산대학교 교수들의 책 소개 글, 소개된 책의 본문(A4 7-8매),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위한 질문 3-4문항으로 각 장을 구성한 총3부 12장의 강의 자료를 공통 교안으로 만들어 활용하였다.<sup>19)</sup>

읽기 자료는 학기 당 3권 정도로 제한하고 한 권당 4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12장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강의 자료 안에서 어떠한 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수자의 재량에 맡겼다. 1주차에는 텍스트 읽기, 2주차에는 조별 토론 과정에서 창의적 글쓰기 주제 정하기, 3주차에는 초고 작성 및 고쳐 쓰기, 4주차에는 초고 발표 및 완성본 작성으로 수업 계획안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를 정할 때는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은 고전 읽기-토론-쓰기의 강의 모형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이 유형의 강의 자료와 강의방식은 학생들이 고전 도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읽고 토론하고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의미를 가지려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의지가 이에 따르지 않아 전제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유형의

18) 2012년 2월에 군산대학교 교육개발원에서 출간하고 황룡교양필독서 운영위원회에서 엮었다.

19) 가령, ‘국화와 칼’에 관한 토론 및 글쓰기 활동의 경우, 토론 활동은 책의 내용 숙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책의 주제와 사회현상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는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글쓰기 활동은 책의 내용과 밀접한 사회 문제 2~3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요로 작성한 뒤 글쓰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제1부 인문정신과 자아의 발견(국화와 칼/삼국지강의/미학오디세이/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제2부 세계 변화와 현실 인식(88만원 세대/김수현 기자의 나도 가끔은 커튼콜을 꿈꾼다/새로 쓰는 성 이야기/경제학 콘서트), 제3부 자기 개발과 삶의 지평 확대(다윈의 식탁/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재미있는 나노과학기술 여행/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강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바로 학생들의 자발적 선행 학습 의지의 부족이었다.

또한 글쓰기 활동은 사회현상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된 책이 바뀌어도 글쓰기 형식은 ‘주장하는 글’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기초글쓰기> 교과목에서 배운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창의적 글쓰기>의 교재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교과목 교수자들을 주축으로 2016년 1학기 종강 이후부터 2017년 여름까지 1년간 교재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때 교재 개발의 목적은 <기초글쓰기> 교과목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심화 단계’의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이고 확산적인 활동 문제 배치,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문제,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합리적 판단과 논리적 표현 연습, 문제해결력(수리적 창의력), 종합적 사고(영역 전이적 융합사고) 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sup>20</sup>.

기존 교재 연구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재 구성과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의 과정이 기계적이고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점<sup>21</sup>, 과정마다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한 회귀적 글쓰기의 부족<sup>22</sup> 등을 지적하였다. 글쓰기 교재가 의사소

---

20) 김기호는 2006~2015년의 논문 중 대학글쓰기와 관련하여 ‘창의성’을 다룬 22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기존 논문의 의의를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김기호, 「대학 글쓰기 교양교육에서 창의성 관련 연구의 성과와 과제」, 『어문학』130, 한국어문학회, 2015, 261-293면.

21) 구자황은 2010년을 전후하여 1기와 2기를 나누고, 1기는 텍스트 중심형, 과정 중심형을 병행하는 교재 형태가 많았던 반면, 2기는 과정 중심, 인지주의 글쓰기 교육을 극복하려는 주제 중심형, 읽기·쓰기형이 많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기계적이고 순환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읽으면서 ‘분석’하고 이를 쓰기에 ‘적용’하여 ‘평가’에 이르는 심화·연계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자황, 「대학 글쓰기 교재의 구성에 관한 일고찰」, 『어문연구』74, 어문연구학회, 2012, 363-382면.

22) 김현정은 장르 중심을 벗어나 맥락에 맞는 글쓰기(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통 중심의 원리, 학습자 중심의 원리, 과정 중심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읽기 과제와 쓰기 과제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3)</sup>고 지적한 기존의 논의도 참고하였다. 또한 기존 창의적 글쓰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의의<sup>24)</sup>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대학의 심화 글쓰기 운영 방식을 참고로 활용하였다. 무엇보다도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수과목인 <기초글쓰기>는 3학점 3시간의 한 학기 강의로,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글쓰기교재 편찬위원회에서 2016년 집필한 교재 『대학인과 글쓰기』가 주교재이다. 교재의 목차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sup>25)</sup>, 전반부에 글쓰기의 기초 사항을, 후반부에 계열별 특성을 가미하여 실용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주제로 단계별 내용을 실습하여 한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하는, 과정중심이면서 구성주의적 형식이라 볼 수 있다.<sup>26)</sup>

내용], 『리터러시연구』9(1),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8, 9-40면.

23) 오세인, 앞의 논문, 37-70면.

24) 박준범은 창의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새로운’과 ‘유용한’을 주요 요소로 삼았다. ‘새로운’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연결한 아이디어의 생성을 말하고 ‘유용한’은 아이디어들이 타당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박준범,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지도방안 연구-클러스터링-회전목마 디스커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7.4, 157-174면.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은 주제 및 제재와 관련한 문제해결식 자극 도구도 필요하지만 글쓰기 전 과정에 대한 자극 도구 역시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도구와 함께 창의적 글쓰기 전체를 자극하는 문제해결의 도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한다. 김기호, 앞의 논문, 283면.

25) 전반부는 제1장 글쓰기의 중요성과 최소 원칙, 제2장 글쓰기의 내용 생성과 전략, 제3장 글의 구성과 고쳐 쓰기, 제4장 단락 쓰기과 고쳐 쓰기, 제5장 문장 쓰기과 고쳐 쓰기이며 후반부는 제6장 설명하는 글쓰기, 제7장 설득하는 글쓰기, 제8장 보고서 및 논문쓰기, 제9장 비평적 에세이 쓰기 [인문사회계열]/테크니컬 라이팅과 감상문 쓰기 [이공계열], 제10장 자기소개서 쓰기, 제11장 프레젠테이션의 방법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과 글쓰기』, 한국문화사, 2016.

26) 기존 글쓰기 교육이 도구적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로서 창의성을 위한 사고력

<창의적 글쓰기>의 읽기 자료, 활동 문제 등을 구성할 때는 이와 같은 <기초글쓰기> 교재의 내용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심화 단계의 글쓰기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대학교 교재 개발팀은 기초 사항과 참조 사항을 고려하여 학제 간 통섭, 글쓰기 주체의 윤리와 자율성, 네트워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다. 실제 학습 성과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활동문제는 교재 전반의 목표와 더불어 학습자 중심, 팀 기반 학습, 과정 중심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였다<sup>27)</sup>.

3장 1절에서는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재인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의 텍스트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을, 2절에서는 활동문제의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군산대학교 심화 단계 글쓰기 교재 분석

#### 3.1. 텍스트의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

##### 3.1.1. 텍스트의 확산성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sup>28)</sup>의 목차는 텍스트의 확산성을 보여준다. 목차는 I부 ‘자아탐색의 여정’, II부 ‘공동체적 삶과 인간관계’, III부의 ‘현대 과학과 생명 의식’, IV부 ‘현실 인식과 미래적 상상력’으로 먼저 ‘개인에서 집

---

교육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김성수,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38,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27-361면.)이 있는데 군산대학교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기초 글쓰기를 잇는 심화 단계임을 고려하였고, 앞서 언급한 ‘새로움’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창의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27) 신선경은 대학 글쓰기 교육은 인문교육이라는 기초와 학제 간 소통과 협동능력 강화, 수평적이고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학습자 주도, 팀별 프로젝트 교육, 학습활동의 다양화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신선경, 「지식융합시대의 대학 글쓰기 방향」, 『사고와 표현』10,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2, 41-66면.

28) 이하 교재로 지칭한다. 최현제, 김교식, 박선양, 임형모, 주지영,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 한국문화사, 2017.

단으로' 사고의 확산을 꾀했다. 자아탐색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년의 삶과 나의 근원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현재의 내 모습을 살피 대학 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사고가 확산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IV부 '현실 인식과 미래적 상상력'의 10장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실 인식'에서 과거와 현재의 직업 패러다임 변화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탐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에서 자연과 우주로' 반성적 사고의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II부 '공동체적 삶과 인간관계' 6장 '인간의 욕망과 통제의 의지'에서 자본주의와 연관된 인간의 욕망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III부의 '현대 과학과 생명 의식' 7장 '과학기술과 윤리'에서는 '신과학'의 개념으로 기술의 윤리적 주체가 되어 인문학적 문제의식에 답해보는 예를 들 수 있다.

### 3.1.2. 텍스트 간 연계성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은 각 부와 장의 내용적 확산성과 함께 텍스트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I부에서 대학인으로서 자아를 성찰하고 그 결과 나타난 차이를 바탕으로 II부 다양성의 기반을 논의한 다음 III부의 디지털 시대 생존전략으로 '인간다움'의 본질적 요소를 도출해보는 것이다. III부의 디지털 시대 생존 전략은 다시 IV부의 직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용하여 현실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구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현재의 '나'를 중심 삼아 자신이 놓인 사회문화적 조건을 살피고 미래의 '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게 하였다. 스스로 융합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4차 산업이라는 배경을 이해하고 대학생이라는 '지금', 작게는 군산이라는 '여기'를 교차직하여 '자아'를 정립하는 셈이다.

### 3.1.3. 텍스트의 순차성

여기에서 순차성은 읽기 자료를 수준별, 단계별로 조직했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이 집필한 각 장의 도입부에서는 장(章)별 주제의 의의를 밝히고 텍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읽을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텍스트인 <기본>에서는 장 별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초 이론 등의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심화>에서는 관련 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깊이 있게, 또는 다른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에서는 <기본>과 <심화>에서 익힌 이론의 내용을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구체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7장의 도입부에서 인문학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의 윤리적 쟁점을 고찰하려는 목표를 제시한 다음, <기본>에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삼위일체라 불리는 ‘GNR’ 융합기술을 자세히 공부한다. 다음 <심화1>에서 기술개발의 조건과 감시주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과학자의 글을, <심화2>에서 기계나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성을 고찰한 글을 읽으며 ‘GNR’ 융합기술로 변화될 자연과 인간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학습한다. 다음으로 <적용1>에서 과학기술의 국제적 기준을 대상으로 윤리적 조건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적용2>에서 AI가 부여받은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과학의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시대에 필요한 윤리기준에 대하여 성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 3.1.4. 텍스트의 다양성

교재 전체의 성격을 밝히는 머리말<sup>29)</sup>에서 강조한 것처럼 관점의 다양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동서, 고급, 저자의 성별 및 매체 등을 안배하였다. 먼저 정보 세대인 학습자를 고려하여 문학텍스트, 독서텍스트<sup>30)</sup>와 함께 시각 및 영상텍스트 등을 고르게 제시하였다. 시각텍스트로는 오리엔탈리즘의 양면성

29) 위의 책, 6면.

30) 비문학 텍스트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로 나뉜다.

을 성찰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 기업 채용 포스터, 이원복의 만화를, 영상매체로는 인터넷 카드 뉴스와 SNS 게시물, 공익광고와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텍스트를 예로 들어 동서, 고급, 남녀 저자의 균형을 살펴보면, 최정례(여)의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한국의 시), 존 스타인 벡(남)의 「분노의 포도」(미국의 소설)를 제시하였다. 텍스트 선정 기준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를 통해 자본주의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척시대를 「분노의 포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문학 텍스트에서 시, 소설, 에세이, 고전의 전(傳)형식 등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과 같이 독서 텍스트 역시 인문, 사회, 경제, 과학, 예술 영역에서 설명문과 논설문을 고르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7장 「과학기술과 윤리」의 <기본>에서 가이아 이론을 설명하는 글을 싣고 11장 「지역기반의 세계문화 창조」에서 사람들이 왜 군산에 가는지에 대한 논설문을 실었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독해함으로써 이를 글쓰기 연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3.2. 활동 문제의 구성 원리 및 세부 내용

활동 문제는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별, 장별로 맥락적 특성이 다르다. 이 장에서는 1부 1장과 Ⅲ부 8장의 활동 문제로 범위를 좁혀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은 글쓰기 주체가 강조된 자아 성찰의 내용이며 8장은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제 구성의 개발 목표와 원리는 사례 외의 모든 활동 문제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적용되었다. 1장과 8장의 활동 문제는 아래 표와 같다.

| 텍스트 | 활동 문제                            |
|-----|----------------------------------|
| 기본  | 단락나누기/중심문장 찾기, 정체성 마인드맵          |
| 심화  | 1 독해/유년시절 경험 서술하기/경험의 현재적 의미생각하기 |
|     | 2 자화상 그리기/의미                     |

|       |   |                                      |
|-------|---|--------------------------------------|
| 적용    | 1   | 음식 재료의 이동 경로 제시하기, 식습관 진단/바람직한 지침 작성 |
|       | 2   | 출생 일화와 의미                            |
| 종합 활동 | 나의 정체성을 글감으로 한 편의 글 완성(원고지)/제목+주제문+개요+800자 내외 |                                      |

<사례1> 1장 유년의 삶과 정체성

| 텍스트   | 활동 문제   |   |
|-------|---|---|
| 기본    | 핵심주장 요약/함축된 결론 유추하기   |   |
| 심화    | 1   | 기본글의 핵심주장을 적용하여 테슬라와 BMW평가/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정의(중차와 유개념 활용)하고 적절성 논의 |
|       | 2   | 보기를 긍정어와 부정어로 자의적 분류하여 양면성 경험/빅데이터 양면성 충돌사례와 해결방안 논의          |
| 적용    | 1   | 설명글 항목화/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인재의 자질 논의/현재 대학생으로서 기를 수 있는 자질 구체화       |
|       | 2   | 자신의 SNS 점검/잇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제 사례에 적용                             |
| 종합 활동 | 신입사원 기존 공고안 통해 각 기업 인재상 조사/디지털 시대 특성 반영 평가/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채용 포스터 만들기 |   |

<사례2> 8장 디지털 시대의 생존전략

### 3.2.1. <기초글쓰기>의 심화 연습

<창의적 글쓰기>는 심화 단계의 글쓰기 교과로서 <기초글쓰기>를 선수 학습 과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와는 유기적 관련성을 추구하였다. <기본> 텍스트는 장(章)별 기본 개념과 배경지식의 이해를 돕는 글이기 때문에 활동 문제를 통해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 글쓰기>에서 학습한 ‘단락나누기’와 ‘중심문장 찾기’를 활동 문제로 구성하였다. <기초글쓰기>에서 학습한 설명과 논증의 방법을 활용하여 중차와 유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하거나, 함축된 내용을 찾아 결론을 유추하는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 다른 텍스트의 문제에서도 반복적으로 <기초글쓰기>에서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제목과 주제문을 적고 개요를 작성하여 기획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 중심의 쓰기 역시 <기초글쓰기>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다. 주로 종합활동에서 이를 활용하였으며, 2학년 수업에서 진행되는 글쓰기임을 참고하여 분량을 800자 내외로 늘렸다. 이후 점차 분량을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되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3.2.2. 과정 중심의 체계적 연습

과정 중심 원리는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정에 역점을 두고 각 과정의 정확한 대응을 통해 최종 성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의적 글쓰기>의 궁극적 학습 성과는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의 함양이다. 의사소통능력의 과정 중심 학습은 앞에서 살핀 <기초글쓰기>의 심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진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에서부터 개요, 한 편의 글 완성으로 단계별 학습을 하는 것이다.

사고력의 단계는 사실적 이해-추론적 이해-비판적 이해-창의적 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해력 측면에서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문제는 주로 <기본> 텍스트에 담았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례2>의 <기본> 문제처럼 맥락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이해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 함양을 위해 전 단계의 독해력을 전제로 삼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정의와 적절성을 논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과 용어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창의력은 과거의 이해와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사례2>의 <적용1>에서 디지털 인재의 자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 다음 현재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인재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생산적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 3.2.3.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 학습

앞서 교재개발의 방향성으로 글쓰기 주체의 윤리와 자율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방향성은 활동 문제에서 특히 학습자 중심으로 적용된다. 학습자가 주체로서 자신의 필요성을 문제로 삼아 자발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sup>31)</sup>

<사례1>의 <적용2>에서 자신의 일주일 식단을 반성적으로 점검하여 바람직한 식단 지침을 만들어보는 문제, 자신의 SNS 게시물을 점검하여 디지털 정체성을 성찰해 보는 문제 등은 모두 학습자가 주체로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전공별로 디지털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 역시 현재의 필요사항이 반영된 차별화로 드러나며 ‘잇할 권리’의 가이드라인을 실제 안전에 적용하여 논의할 때도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 3.2.4. 팀 기반의 문제해결 학습

팀 기반 문제해결 학습은 팀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발견하여 명료화하고 원인 분석, 대안 평가 등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활동 문제에서는 텍스트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와 연결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기반 문제해결 학습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사례2>의 <심화1>에서는 동일단어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보며 빅 데이터의 양면성을 직접 체득한 후 양면적 특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

31) 이 교재에서는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학습자가 군산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임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의 강의평가 서술답변을 보면 학교 캠퍼스를 산보하며 사진으로 남기고 그 정서를 글로 표현해 보는 것, 근대문화역사라는 지역성이 잘 살아있는 축제를 참관하고 기획의도를 평가하는 일 등은 대학 시절 추억이 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팀별로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팀 안에서 의견차를 조정할 수 있고 대안 역시 반론을 거쳐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종합활동>에서는 앞서 활동한 디지털 인재의 자질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 채용 포스터를 만들도록 하였다. 현재 기업의 인재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팀에서 만든 디지털 인재상을 적용하여 실제 포스터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3.2.5.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학습자들은 디지털 장치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정보를 조직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다. 이에 필요한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은 3.2.4항의 팀 기반 학습에서 팀 조직과 소통, 다각도의 자료를 검색하고 연결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디지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비선형적인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역동적 상호텍스트성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지와 소리, 영상 등이 혼합된 다중적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사례1>의 <적용1>에서 음식의 이동 경로를 찾는 활동, <사례2>의 <심화1>에서 테슬라와 BMW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디지털 자료의 역동적 상호텍스트성이 개입된다. 위 사례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중가요 노랫말을 개사하여 불러보게 하거나 캠퍼스 포토 에세이를 쓰는 것, 현재 대학 생활을 설계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3분 영상 편지, QR코드 인식 활동, 지역 문화 콘텐츠의 홍보 영상 제작과 게시 등이 모두 디지털 기반 활동에 해당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업에서 지원자의 SNS 활용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무심히 디지털 소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SNS상의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게시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사례2>의 <적용2>에 해당 활동 문제를 구성하였다.

### 3.2.6. 창의적 사고의 연습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의 궁극적 도달점은 창의적 사고의 함양<sup>32)</sup>이다. 이때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힘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렴적 문제해결력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스스로 합리적 준거에 의한 판단과 논리적 표현 연습, 영역 전이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활동 문제를 구성하였다.

<사례2>를 예로 들면 <기본>에서 함축된 결론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위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심화1>에서는 <기본> 텍스트의 핵심주장을 적용하여 테슬라와 BMW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서 적절한지 논의하고, <심화2>에서 자의적으로 분류된 빅데이터의 양면성이 충돌하는 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과 논리적 표현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해결력은 주제와 관련된 기본 정보의 습득과 새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영역 전이적 융합사고라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역시 특정 영역에 국한된 사고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며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과 다른 분야의 텍스트를 고르게 읽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1>을 통해 그림, 경험, 식단과 푸드 마일리지 등 다양한 영역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주어진 활동 문제를 해결하며 이론과 실제, 객관과 주관, 사실과 의견을 넘나들며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2>에서는 과학기술의 현재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인재의 특정 자질로 바꾸어 경험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키워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영역을 가로질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32) 고도화, 다양화, 개성화의 성향이 짙어진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위의 책, 6면.

## 4. 맺음말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재는 글쓰기의 심화 단계로서 정체성을 개발의 기초 사항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다양한 기술 방법과 매체로 구성된 텍스트는 지식의 확산성과 연계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 문제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갖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초글쓰기>에서 글쓰기 관련 단계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습자 중심의 활동 문제 구성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 교재의 독창성은 영역 전이적 읽기 자료와 활동 문제를 풍부하게 배치한 점, 군산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임을 고려한 점이다. 교수자는 학과별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참고하여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중 다루지 않은 텍스트는 학생들에게 좋은 독서 자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4차 산업의 준비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의의가 있다.

교재를 기획하여 텍스트를 생산하고 가공한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는 과정은 지난하다. 각 과정은 각기 분리되어 논의할 수 없다. 머리말의 접속사, 문장부호, 문장 하나하나까지 모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이 교재가 <창의적 글쓰기>의 개설 목적에 맞게 실제 강의에서 잘 사용되는 것이다. 교재가 갖는 의의가 교과목의 학습 성과로 성취되려면 교수자의 깊고 넓은 배경지식과 디지털 기술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들의 교재 연구와 활동문제 사례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반응에서 교재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재 개발의 유효성과 한계를 찾는 일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최현재·김교식·박선양·임형모·주지영,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연습』, 한국문화사, 2017.

### 2. 논저

구자황, 「대학 글쓰기 교재의 구성에 관한 일고찰」, 『어문연구』 74, 어문연구학회, 2012, 363-382면.

군산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과 글쓰기』, 한국문화사, 2016.

김기호, 「대학 글쓰기 교양교육에서 창의성 관련 연구의 성과와 과제」,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2015, 261-293면.

김누리, 박숙희, 전경원, 표정민,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창의력교육연구』 17(4),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7, 101-121면. (『2017년 창의성 정책 포럼-창의적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창의공학연구센터, <http://www.ccer.or.kr>)

김성수,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8,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27-361면.

김정숙·백운경,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3-116면.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 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한국정책학회, 2017, 3-27면.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리터러시 연구』 9(1),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8, 9-40면.

문미애,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방안-전북대학교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2),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67-88면.

- 박준범,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지도방안 연구-클러스터링-회전목마 디스커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4, 157-174면.
- 서승희, 「대학 글쓰기교재 분석 및 방향성 고찰-이화여자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9,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7, 213-238면.
- 손혜숙,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독서와 소통」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 한남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5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227-254면.
- 신선경, 「지식융합시대의 대학 글쓰기 방향」, 『사고와 표현』 10,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2, 41-66면.
- 심지연, 「사고와 표현 통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서원대학교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57,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361-394면.
- 양근용, 「인천대학교 글쓰기 교재 검토」, 『인문학 연구』29, 인문학연구소, 2018, 105-133면.
- 양수연,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과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9,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79-210면.
- 오세인, 「대학 글쓰기 교재의 읽기.쓰기 통합과제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42,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8, 37-70면.
- 윤철민,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2005, 2014년 고려대학교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5, 177-204면.
- 이다운,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양상 연구 - 충남대학교 「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28,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161-196면.
- 이선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 23(1), 안암교육학회, 2017, 231-260면.
- 이청, 「대학 글쓰기 교재의 개요항목 작성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1), 순천향 인문학연구소, 2018, 153-180면.

- 조경덕,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글의 진술방식 고찰’ -대학 신입생 대상 글 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2018, 475-500면.
- 조성숙,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의 통합검토 및 제안」, 『한민족어문학』 81, 한민족어문학회, 2018, 9-37면.
- 한동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9-24면.

【Abstracts】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Writing Textbook in Advanced Level

—Based on the “Creative Writing” textbook in Kunsan National University —

Joo, Jiyoun · Choi, Hyunjai · Park, Seonyang

The textbook in Kunsan University’s “Creative Writing” set the purpose of opening the subject, which is an advanced stage of writing, and the learning outcomes of communication and thought-building as the basis for development. The text was constructed to access sequentially, taking into account the spread of knowledge, connectivity, and the level of learners. Activities were designed to raise questions based on background knowledge obtained from various data and to foster problem solving skills. In the process, the students were allowed to develop digital communication skills and exercise their autonomy.

The originality of Kunsan University’s “Creative Writing” textbook takes into account the richness of reading materials and a study questions that crosses the academic spectrum, and the consideration of locality. In order for the significance of the textbook to be achieved through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subject, it is essential that the professor have deep and wide background knowledge, and must understand the Digital Age. Also, learners’ self-participation is essential.

**Key Words** : advanced level of writing, creative writing, a college writing textbook, creative thinking, study questions, communication skills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